

오순절 후 열여섯번째 / 새가족 환영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6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9월 1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8 장 “주 예수여 은혜를” (통일 48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8 번 (시편 92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빌립보서(Philippians) 4:4-7	정강섭 집사
찬 양 Anthem	“드러지게 하소서”	찬양대
설 교 Sermon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감사해”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365 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통일 48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생각과 진실되지 못한 말과

죄악된 행동을 여과없이 드러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 27, 고전 3:16,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개역개정 **빌4:6**)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NIV **Philippians 4: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17 (주일)	9/18 (월)	9/19 (화)	9/20 (수)	9/21 (목)	9/22 (금)	9/23 (토)
본문	삼하13 고전6 겔20 시66,67	삼하14 고후7 겔21 시68	삼하15 고후8 겔22 시69	삼하16 고후9 겔23 시70,71	삼하17 고후10 겔24 시72	삼하18 고후11 겔25 시73	삼하19 고후12 겔26 시7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9/20수 오후7:30)	“영성의 갈”(5)-“일상의 영성”(골3:23,24)
토요 새벽기도회 (9/23토 오전6:30)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나도”(시119:89-96)

지난 주일(9/10)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갈 2:16-21)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참고 갈 2:16)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믿음이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이기에, 우리는 막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께서 품으셨던 바로 그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도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Faith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를 제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기에... 이를 위해, 먼저 1)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바로 그 믿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한 2)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바로 그 믿음을 우리도 마음에 심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3)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 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갈 2:20)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